문예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해외 문화예술계의 주요 뉴스를 요약 번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kcaf.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해외 문화예술 뉴스

베를린, 재정난으로 예술지원 축소

5월 27일 베를린 시 정부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베를린 시의 재정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모임에서 베를린 시의 부채가 800억 DM(4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로 인해 베를린을 "유럽의 수도"로 만들려던 야심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베를린 시의 재정적자는 지역적인 문제이며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베를린 시가 독일 전체의 문화정책이나 대외정책을 위해 중요한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건설중인 유태인 박물관 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베를린은 베를린의 문화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베르토 빌라, 케네디 센터 등에 거액 기부

세계 예술계의 가장 큰 기부자 중 한 사람인 알베르토 빌라 *Alberto Vilar*는 최근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 5천만불,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4천500만불, 키로프 발레단 2천만불, 코벤트 가든 천8백만불, 잘츠부르크 오페라 극단에 <파우스트> 제작을 위해 620만불, 라 스칼라에 베르디의 해를 위해 200만불, 바이로이트의 탄호이저와 베를린의 작가 거주 프로그램 3개에 대한 비용 등을 이미 기부했거나 기부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2억2천5백만 달러를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에 기부해 왔다.

예술에 대한 공공기금이 축소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빌라의 이러한 기부는 진정 예술을 살리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많은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은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오페라 팬진의 편집자가 지적하듯이 빌라가 극단들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도외시하고 그의 취향에 맞는 작품만을 제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빌라가 극단의 음악가 및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비

판에 대해서 많은 수혜자들은 빌라에게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를 변경하는 일은 없다며 빌라를 옹호한다. 두번째 비판에 대해서 빌라 자신이 그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기부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며, 만약 그것이 싫으면 돈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렇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실제적으로 모든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시도 도밍고 *Placido Domingo*와 다니엘 바렌보임 *Daniel Barenboim*과 같이 본인이 선호하는 음악가들이 있는 단체에 기부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부에 대한 대가로 빌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코벤트 가든의 지정석 두 좌석을 가지고 있고, 가끔씩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가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본인은 이에 매우 만족해 한다. 그는 현재와 같이 균형재정을 요구받는 정부가 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기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은 이를 알리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많은 부자들이 자신과 같이 예술을 많이 접해서 예술이 주는 기쁨을 알고, 이를 위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종묘제례악> 및 일본의 <能樂>, 유네스코의 ' 세계무형유산 ' 제1호로

일본의 <能樂>(노가쿠)를 포함해서 19건의 세계적인 예능과 문화가 5월 18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관(유네스코) 본부에서 " 인류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으로 선언되었다.

귀중한 예능과 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창설된 본 제도의 제1호 문화예술 유산으로 선언된 것은 <能樂> 외에 한국의 아악(雅樂) ' 종묘제례악 '과 중국의 전통극 <昆曲>, 그루지아의 합창, 모로코의 광장 大道藝 등이 포함되었다.

松浦晃一郎사무국장은 " 종래의 세계유산이 구미제국의 문화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 제도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일조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 YMCA 작가의 소리 프로그램 폐지 위기

1981년 작가이며 YMCA의 자원봉사자였던 제이슨 신더 *Jason Shinder*가 5백 달러의 대출금으로 처음 시작한 뉴욕 웨스트사이드 YMCA 작가의 소리 *Writer's Voice* 프로그램은 뉴욕의 대표적인 대안 문학공간이다. 신더는 1976년 창립된 권위있는 작가 워크샵 프로그램인 작가 공동체 작가 공동체 *Writer's Community*와 제

휴를 맺었고, 릴라 월러스 기금 *Lila Wallace Fund* NEA의 지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작가의 소리 프로그램은 젊은 작가들이 값비싼 대학원의 문예창작과정 수업을 듣지 않고도 창작수업을 받고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 프로그램 출신으로 성공한 작가도 매우 많다.

그러나 웨스트사이드 YMCA의 경영진은 이곳 YMCA가 보다 열악한 다른 지역의 YMCA를 재정적으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전혀 없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 공간을 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웨스트사이드 YMCA 대변인 로웬나 달리 *Rowena Daly*는 비영리 조직도 본질적으로는 사업체와 다르지 않다며 프로그램 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집하는 것은 비영리 조직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라며,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운운하는 경영진을 강력히 비난했다.

YMCA 측은 반발이 거세지자 올 가을까지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며, 6월 1일 새로운 경영진이 임명되면 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존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홀 작품, 전후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

5월 16일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열린 현대미술 경매에서 1964년에 제작된 워홀 *Warhol*의 <큰 꽃 *Large Floweres*> 시리즈 중 한 작품이 전후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분홍색와 빨간색의 두 꽃을 실크스크린으로 그린 이 작품은 경매 시작 전에는 3 4백만달러 선에서 판매되리라 예상되었었는데, 한 익명의 전화 입찰자에 의해 840만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에 낙찰되었다. 이 작품은 시리즈로 제작된 4점 중 하나인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개인소장으로 남아있던 작품이어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매에서 두번째로 높은 가격에 팔린 작품 역시 워홀의 작품인 <오렌지 마릴린 *Orange Marilyn*>(1962)이었다. 이 작품은 유럽 수집가로만 알려진 입찰자에 의해 370만달러에 팔렸다. 이날 경매는 최근 뉴욕 증시가 안정되면서, 구매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미술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매에 붙여진 59점의 작품 중 10점만이 유찰되었고, 판매대금은 총 4,120만달러에 이른다.

세익스피아 초상화, 캐나다에서 발견

영국 극작가 세익스피어로 추정되는 초상화가 캐나다에서 발견되어 영국과 미국의 전문가 사이에서 진품 · 모조품 논쟁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견된 초상화는 1603년 39세의 문호(文豪)를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초상화는 세로 42㎝, 가로 33㎝ 크기로, 넓은 옷깃의 초록색 옷을 입은 갸름한 얼굴의 남자가 미소짓고 있다. 뒷면에 "1603년 세익스피어 39세"라고 써진 종이가 붙어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세익스피어의 얼굴과 닮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초상화를 소유하고 있는(온타리오州 거주) 남성은 "세익스피어와 같은 극단에서 활동했던 조부가 그린 것으로 조부가 영국에서 이주해 올 때 가보(家寶)로서 캐나다에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안료와 목판 등 소재를 8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모두 1600년 전후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엑스선 검사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캐나다 유력신문 글버브 앤 메일지가 이번 달 11일 특종으로 보도해서 각지의 세익스피어 연구가들 사이에 진위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진품일 경우 생전의 세익스피어를 그린 유일한 그림이 되지만,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판정 불능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모조품설이 우세하다.

한국 영화, 일본 영화계 강타

에로, 서스펜스, 로맨스가 있는 한국 영화붐이 그칠 줄 모르고 인기다. 북한의 테러리스트를 그린 영화 <쉬리>를 시초로 <카라> <유령> <거짓말> 등 본국에서의 화제작이 차례차례 상륙하고 있고, 현재 상영 중인 <주유소 습격 사건>도 확실하게 '히트'를 기록 중이다. 4명의 불량배가 주유소를 습격해서 인질을 잡고 농성하는 이야기가 <주유소 습격 사건>. 불량배 역을 연기한 주연 이성재(30) 강성진(38)은 "4명이 각각 품고 있는 가슴속의 응어리를 관객들이 공감해 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는 2년 전에 공개되어 <쉬리>에 이어 관객동원 2위를 기록했고, 그 여세를 몰아 일본에 진출했지만, 정작 김상진 감독(34)은 매우 냉정하다. "한국영화붐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의 한국영화는 <뽕잎> <춘향전> 등 한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모티브의 영화가 많았지만,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처럼 소재의 폭이 넓어져 한국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가 제작된 것 일뿐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감독에게 작금의 일본영화는 어떻게 비취어지고 있을까.

"테마도 공간도 왜소해지고 있고, 예술작품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세계시장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한국영화가 질적 향상을 이룬 반면, 일본은 어째서 축소지향적으로 보이게 된 것일까. 뼈아픈 지적이다. 다만, 김감독은 일본영화의 좋은 영향도 받았다고 말했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는 폭력과 유

머의 미묘한 발란스를 늘 염두에 두었다. 이것은 北野武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얘기를 가끔 듣는다. 스탠리 큐 브릭크도 그렇지만 北野 작품도 폭력과 사회비판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작품으로 그렸는데, 그 점을 의식했음을 나 자신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깐느국제영화제에서는 경쟁부분에 출품한 3개 작품과 함께, 맥없이 탈락한 일본영화에도 희망은 있을까.

한국영화 사정에 밝은 영화기자 田中宏子는 "일본인이 한국영화에 이겼다느니 졌다느니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갈하면서, "모든 나라의 영화 문화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미국 헐리우드다. 일본과 한국이 상호간에 라이벌로 인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해서 헐리우드를 위협할 정도까지 된다면 또한 재미있는 일일텐데…."라고 했다. 차라리 월드컵 공동개최에 맞춰 한일 공동으로 스펙터클한 영화를 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영국 왕립 세익스피어 극단, 구조조정 계획 발표

영국 왕립 세익스피어 극단은 지난 5월 23일 바비칸 *Barbican*에서의 활동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공연을 제작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의하면 극단은 보다 유연해질 것이지만, 런던과 스트라트포드 *Stratford*에서 극단 인력의 감축이 뒤따를 것이다.

현재 극단의 구조 아래서 배우들은 장기계약을 맺어야만 극단과 공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많은 배우들과 연출자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계약을 늘리는 대신, 배우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제작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극단의 예술감독인 애드리안 노블 *Adrian Noble*은 한 예술기관을 항상 새로우면서도 현실에 맞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대를 보다 과감하고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준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스트라트포드에서 뉴캐슬을 거쳐 런던에 이르는 공연시즌 대신, 다양한 장소에서 소그룹에 의한 연중 상설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다. 왕립 세익스피어 극단이 바비칸의 주공연장에서 공연하기는 하지만 주공연장이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 계획 중에는 스트라트포드에 아카데미를 세워 배우를 교육시키고 충원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왕립 세익스피어 극단의 주요 재원을 제공하는 잉글랜드 예술 위원회는 극단측의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하고 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왕립 세익스피어 극단이 21세기에 걸맞는 국가적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변화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그들의 새로운 계획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의 전쟁 추모하는 <혼교 : 영혼의 다리> 콘서트 열려

5월 30일 수요일 미국 미네소타 성 폴 오르드웨이 *St.Paul Ordway* 센터에서는 2차대전 당시 아시아에서의 고통을 추모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 콘서트는 한국어로 영혼의 다리를 뜻하는 혼교로 명명되었으며 제목을 가지고 저마다 가족사에 전쟁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동아시아 음악가들이 같이 공연될 것이다. 이 콘서트를 위한 음악은 재미 한국인 작곡가이며 산타 크루스 소재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김희경이 작곡하였고 바이올리니스트이며 미네소타 실내악 협회 김영남이 지휘를 맡았다. 또한 전쟁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한 중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세계적 첼리스트인 요요마가 협연한다.

이 콘서트는 사실 다른 콘서트의 한 부분으로 기획되었던 것이 요요마에 의해 하나의 콘서트로 확대된 것으로, 2차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폴란드의 슐레지엔에서 열렸던 콘서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다. 요요마는 음악이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음악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상흔을 씻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곡가 김희경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태평양의 물살처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이 콘서트의 음악을 작곡했다고 말했다.

미국, 예술에 대한 기부금 크게 증가

지난 21개월 동안 워싱턴의 4개 문화기관, 즉 코코란 미술관 *Corcoran Gallery of Art*,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 스미소니안 박물관 *Smithonian*, 국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은 도합 4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았다. 이는 연방의 예술 지원 기관인 NEA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예술에 대한 기부의 증가는 미국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 자선기관, 정당 등에 대한 기부 증가의 일환으로서, 무엇보다도 클린턴 정부 시절의 경제적 호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계의 발전된 기금모집 기술, 정부의 예술지원 삭감 등이 기부자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예술지원기관인 포드재단은 작년 닷컴 기업들이 예술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했다.

예술에 대한 기부의 한가지 매력은 기부자들이 기부대상기관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술기관들

은 기부를 반기면서 한편 이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무용, 재즈, 실험예술 단체는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장르에 대한 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총선 앞두고 문화정책 공방

오는 6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문화정책 공방이 뜨겁다. 보수당은 노동당의 지난 4년간의 문화정책이 재앙의 연속이었다면서, 노동당의 영국의 전통과 유산을 무시하고, 사이비 같은 새로운 예술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은 국립복권제도를 창설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은 자신들이었으나, 노동당 정부들어 복권기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수당은 복권 잉여금과 채널4 판매 이식금을 이용하고 문화 기관을 위한 40억 파운드의 지원기금을 창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들은 공약문에서 영국 예술평의회와 지역 예술위원회 *Regional Arts Board*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예술과 예술가에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덜 관료적인 지원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지난 20년간 보수당의 문화예술정책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예술에 대한 낮은 투자, 잘못된 우선 과제 설정, 조직의 결여 등으로 인해 영국 예술의 우수성과 국민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나, 1997년 노동당 집권 때부터 예술환경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모든 국립박물관이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이미 무료로 개방되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람에게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2004년까지는 예술지원을 1997년 기준으로 60% 증가시킬 것이며, 2002년부터 컬쳐 온라인 *Culture Online*을 통해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국가 수장품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다양한 문화 행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거공약에서 밝혔다. 그리고 영국 예술평의회에 대해서는 노동당도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보다 덜 관료적인 구조를 통해 예술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노동당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누가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호주, 미술분야 현황 조사 실시

5월 28일 호주 정부는 미술분야 현황 조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사는 호주 평의회 *Austrailian*

*Council*가 주도할 것인데, 호주 평의회는 우선 주와 연방 예술 행정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 이후 미술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쓰로스비 *David Throsby*는 호주 통계청을 위해 작성한 한 논문에서 "지금까지 공연예술이 공공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미술, 공예, 사진에 대한 정부 지원이 1992 93년 2천200만달러에서 1998 99년 3천만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은 8천400만 달러에서 1억6천800만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들고 있다.

1999년 12월 헬렌 누젠트 *Helen Nugent*는 호주 공연예술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호주 평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 공연예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6천만달러이상 증가했다. 호주의 미술계는 이번 조사가 이러한 누젠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1년 터너상』 후보 발표

5월 30일 세계 미술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 중의 하나인 터너상의 2001년도 수상 후보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리처드 빌링엄 *Richard Billingham*, 마틴 크리드 *Martin Creed*, 아이작 쥴리언 *Isaac Julien*, 마이크 넬슨 *Mike Nelson*으로 모두 남성이며, 이들의 분야는 비디오, 설치, 사진 등이다. 이들은 예정의 수상자 혹은 후보자인 트레이시 에민 *Tracey Emin*이나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을 휩쓸어 왔던 YBA *Young British Artist* 운동과는 약간 다른 작가들이다. 아이작 쥴리엔은 프란츠 파농 : 검은 피부, 하얀 가면 그리고 젊은 저항자들이라는 영화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영화는 인종, 남성성을 다루고 있으며 스테레오타입을 깨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그의 작품이 이론적 정교함과 감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틴 크리드는 하얀색 혹은 검은색 풍선 등 실제 사물과 네온으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의 작품이 "순수함과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빌링엄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진작업으로 유명한 영국 사진작가이며, 마이크 넬슨은 영상, 문학 등을 아우르는 설치와 조각 작품을 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상 후보작가들의 작품 전시는 11월 7일에 시작될 것이며, 상금 2천만 파운드가 걸린 터너상의 최종 수상자는 12월 9일 테이트 모던에서 거행될 수상식에서 밝혀질 것이다.

심의위원회 의장이며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 *Nicholas*

*Serota*는 빌링엄 *Billingham*과 쥴리엔 *Julien*의 작업에서 평면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면화가는 수상후보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수상후보자들이 젊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미술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터너상의 목적은 현대 미술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공공의 논의를 지원하고자 함이지 최고의 작가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회 상하이 비엔날레』, 중국 미술 개방 촉진

중국정부는 2002년 3회째를 맞는 상하이 비엔날레에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해 외국인 큐레이터를 초빙하고, 중국인 작가와 외국인 작가를 각각 30명씩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초빙 큐레이터는 *Hou Hanru*, *Toshio Shimizu*이다. 문화혁명을 경험한 중국작가 *Li Shan*은 예전에는 서방작가 작품들이 중국에서 전시되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며, 이들이 중국에 오고 싶어하고, 중국 또한 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전은 단지 외국작가들을 유치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내년 전시에는 중국 관료들이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 등 5년 전에는 절대 예술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작품들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중국 미술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환경문제, 이민노동자에 대한 착취, 중국 근대화에 수반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도 전시될 예정이어서 주제면에서의 발전도 두드러진다.

이외에도 중국의 젊은 작가들은 본 전시 이외에 특별전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세계에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눈감아 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이들의 전시를 금지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하이 최초의 현대미술 화랑인 상하이 아트의 소유주 *Lorenz Helbling*은 "상하이의 미술계는 변화했다. 정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하이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비엔날레 동안 수많은 외국인이 상하이를 방문했었고, 비엔날레에 따른 부수적 행사들을 금지시키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며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개막

리처드 세라 *Richard Serra*와 사이 톰볼리 *Cy Twombly*가 6월 9일 열린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에서 '현대 미술의 거장'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국가관상은 그레고르 슈나이더 *Gregor Schneider*가 기획한 독일관, 특

별상은 *Janet Cardiff & George Bures Miller*(캐나다), *Marisa Merz*(이태리), *Pierre Huyghe*(프랑스) 등 3명, 젊은작가 특별상은 *Federico Herrero*(코스타리카), *Anri Sala*(알바니아), *John Pilson*(미국), A1 - 53167(과테말라) 등 4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비엔날레의 심사위원은 에리 카마라 *Ery Camara*(세네갈 출생, 멕시코 활동), 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르키에프 *Carolyn Christov - Bakargiev*(뉴욕 출생, 로마 활동), 만레이 흐수 *Manray Hsu*(대만),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Hans Ulsich Obrist*(스위스 출생, 파리 활동), 비르히니아 페레스 라톤 *Virginia Perez - Ratton*(코스타리카) 등이다.

헨델의 ' 글로리아 ' CD 출시

지난 3월 처음으로 발견된 헨델의 작품 <gloria>가 6월 출시예정으로 녹음되었다. 녹음에는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 *Emma Kirkby*와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참여했으며, 녹음된 CD는 BIS 레이블로 6월 4일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6월 7일에는 런던의 메릴본 교회에서 라이브로 연주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함부르크 대학의 교수인 한스 요아힘 맑스 *Hans Joachim Marx*가 영국 왕립 음악원 도서관에서 최초로 발견한 것인데, 학자들은 이 작품이 메시아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작품은 1707년 헨델이 21세 때 이탈리아 스타일의 오페라 작곡법을 배우기 위해 로마로 갔을 당시 작곡된 것이며, 작곡된 이후 한번도 연주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맑스 *Marx* 교수는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헨델 작품 카탈로그 작성을 위해 연구하던 중 이 작품을 발견했다.